

「막스·웨버」의 理想型에 있어서의 問題點

崔 文 煥

I

現在 社會科學을 研究하는 方法論으로서 理想型이 共有財産과 같이 되어 있다. 어떠한 理論을 抽出하려면 個別的인 特殊性을 捨象하고 그런 것에 共通되는 本質的인 諸性格을 밝히는 것이 必要하다. 「마셜」의 代表的 企業 「마르크스」의 純粹資本主義 또는 「막스·웨버」의 理想型은 그 形態와 內容이 다르다 할지라도 現象의 副次的 諸屬性을 捨象하고 基本的 本質的인 諸性格에 分析의 焦點을 두고있는 것은 共通된 點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웨버」의 理想型의 概念에 對해서는 最近에 있어서 널리 使用되면서도 이에 對한 明確한 究明이 없기 때문에 이 論文에서는 主로 理想型을 밝히는 同時에 問題의 所在點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막스·웨버」의 夫人 「마리안네·웨버」(Mariane Weber)에 依하면 1902年은 「웨버」에 있어서 一轉換期이라고 한다. 그 以前의 時期에 대하여 그 以後의 時期를 「새로운 段階」(neue Phase)라고 부르고 있다.⁽¹⁾ 1902年 以前에는 젊은 學者로서 끊임없이 歷史研究에 從事하는 同時에 社會的 政治的인 諸問題에 깊은 關心을 表示하였다. 中世의 商業 또는 「로마」의 農業研究는 그의 史料探求에서 나타난 빛나는 成果이었다. 그리고 그의 就任講演에서는 國民國家의 立場에서 본 政治的 情熱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病後 그의 關心은 政治的 社會的인 問題에서 떠나 內面的인 思索의 世界에로 파고 들어 갔다. 즉 社會科學의 方法論, 認識論의 思索에 沒頭하였다. 1902年 봄에 着手한 『「로서」와 「크니즈」』 歷史學派國民經濟學의 論理問題를 1903年에 發表하였다. 그後 發表한 「社會科學的 認識과 社會政策的 認識의 客觀性」 등의 一聯의 論文은 그의 理想型의 理論과 價値判斷의 排除의 主張을 展開하였다. 그리하여 社會科學方法論에 關하여 劃期的인 問題를 學界에 提供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는 社會科學을 어떻게 보며 이를 어떠한 方法으로 研究코자 하는가?

『우리가 研究코자 하는 社會科學은 現實科學이다. 우리는 우리를 싸 들고 그 속에 우

(1) Mariane Weber, *Max Weber, Ein Lebensbild*, Tübingen, 1926. 「웨버」研究에 있어서 그의 夫人의 이 著書는 不可缺한 文獻이다.

리가 놓여있는 生活의 現實을 그의 特性에 있어 理解코자 한다. 즉 一面에서는 現在의 形態를 取하고 있는 個個의 現象의 聯關과 文化的 意義를 理解코자 하며 他面에 있어서는 그의 現象이 歷史적으로 보아 이와 같은 形態로 되고 다른 形態로 되지않았다는것(So-und-Nicht-anders-Gewordenseins)의 根據를 밝히고자 한다.⁽²⁾ 웨버가 본 社會科學은 現實科學이며 現實을 把握하는 態度는 그것이 歷史적으로 現在와 같은 形態로 나타나게 된 根據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歷史研究에 있어서는 그는 過去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를 그대로 忠實히 追求코자 한 「랑케」(Ranke)의 態度와 歷史를 必然의 過程으로 보려는 「마르크스」의 態度와도 다르다. 그리고 몇 개의 一般의 法則으로 還元하려는 어떤 學問的인 態度와도 根本적으로 다른 態度를 取하였다. 그에 依하면 自然科學은 普遍妥當의 法則을 밝히는 것이나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이러한 普遍妥當의 法則을 追求하면 그만큼 그의 內容이 空虛하며 價値가 없는 것으로 된다고 보았다. 이點 그는 自然科學은 普遍妥當의 法則에 依하여 밝힐 수 있고 文化科學은 歷史의 個別의 方法에 依하여 밝힐 수 있다는 「리케르트」(Rickert)의 立場을 取하고 있다. 事實 그는 社會科學方法論에 있어서는 그 自身「리케르트」學徒라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³⁾

그러면 그는 社會科學에 있어서「리케르트」의 方法을 어떻게 適用코자 하는가? 그에 依하면 歷史는 『無限한 生起의 흐름이 永遠으로 向하여 流轉하고 있으며 現實의 社會現象은 無限한 多樣性 즉 異質的 連續性을 內包하고 있다. 이와같은 歷史의 生成과 流轉 및 多樣多彩로운 無限한 現實은 어떠한 完全한 法則이라도 이를 理解 또는 把握할 수 없다』고 그는 보는 것이다. 『文化現象의 形成의 意味와 그意味의 根據란 것은 어떠한 完全한 法則概念의 體系에서도 理解할 수 없다. 그것은 文化現象은 價値理念에 關係지우는 것을 前提로 하기 때문이다.…… 經驗的 現實은 우리가 그것을 價値理念에 關係지우기 때문에 또 그러한 限에 있어서 우리에게 對하여 文化이다. 文化는 現實을 構成하는 要素中 위와같은 關係에 依하여 우리에게 意味있는 것으로 되는 部分, 그 部分만을 말한다』⁽⁴⁾ 이와같이 보고 現實은 決코 無前提로 認識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그는 쓰고 있다. 『現實을 無前提로 認識코자 하면 그것은 아무리 眞摯하게 試圖하여도 結局 無數의 個別的인 知覺에 關한 存在判斷의 混沌에 到達할 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成果는 다만 外見上으로 可能한 것

(2)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SS. 170~171

(3) 「웨버」가 「리케르트」의 方法論에 依據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밝히고 있으나 兩者의 關係를 要領있게 論議한 것으로서는 Raymond Aron, *La Sociologie Allemande Contemporaine*, p.98 ff.

(4) Max Weber, a.a.O., S. 175

에 不過할 것이다.』⁽⁵⁾ 『例를 들면 어떤 過程을 社會經濟的 現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決코 그 過程自體에 客觀的으로 附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對한 解釋은 人間의 認識의 關心의 方法에 依하여 制約된 것이며 그의 關心은 또 特殊한 文化意義에서 나타난다.』⁽⁶⁾ 이와같이 생각한 「웨버」는 歷史 및 社會現象을 把握하기 爲해서는 人間이 一定한 思考樣式에 依하여 이를 整理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一定한 認識의 關心을 갖고 整備한다는 것은 一定한 文化의 價値理念에 關聯지우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價値理念에 關聯시켜야 비로소 實在를 有意義하게 認識할 수 있다. 이 內容을 밝히기 爲하여 具體的인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歷史를 研究하려면 無數한 資料가 認識의 對象으로 된다. 이러한 無數한 資料에서 知識의 對象으로 되는것을 選出하려면 어떠한 基準에 立脚하여야 하는가? 마치 廣大無邊의 荒野에서 一高地에 焦點을 주는 것과같이 一定한 點에 觀點을 두어 知識을 整備하여야 한다면 어떤 觀點에 立脚하여 整備할 수 있는가? 그것은 「政治的인 事件이 重要하다」 또는 「經濟的인 事件이 重要하다」는 文化의 價値理念의 觀點에 關聯시켜야 비로소 知識이 成立한다고 「웨버」는 보는 것이다.

이와같이 보는 「웨버」의 立場을 「웨버」의 著名한 解說者인 「알렉산더·폰·셸팅」(Alexander von Schelting)의 훌륭한 表現을 빌리면 『材料自體 內에는 우리들에게 非本質的인 것을 本質的인 것에서 客觀的으로 分離하고 그것에 依하여 生起하는 것 中에서 歷史的으로 重要的인 個別的인 要素를 孤立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種類의 『指標』도 없다. 論理的인 見地에서는 다같이 現實的인 것이 個別的으로 重要的인 것과 重要하지 않은 것으로 區別하게 되는 것은 다만 價値的인 觀點(Wertgeschichtspunkt)뿐이다.』⁽⁷⁾ 文化科學의 對象은 自然科學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價値的인 觀點에 立脚하든지 또는 價値에 關聯지우는 것 (die Beziehung auf Wert)에 依하여야만 個性的인 것을 把握할 수 있다고 그는 主張하였다. 「막스·웨버」의 價値觀點, 價値에 關聯지우는 이 見解는 現代學界의 公有財產으로 되어 있다. 「칼·만하임」(Karl Mannheim)의 展望主義(perspectivism)의 概念은 「웨버」의 價値關係의 概念과 거의 같으며⁽⁸⁾ 「스프로트」(Sprott)가 社會的인 認識의 前提條件의 하나로 본 價

(5) Max Weber, a.a.O, S. 161

(6) Max Weber, a.a.O, S. 161

(7) Alexander von Schelting, *Max Webers Wissenschaftslehre*, 1934, p. 266

(8) 「머튼」(Merton)은 「만하임」의 『展望主義』의 概念이 「리케르트」·「웨버」의 『價値關係』(Wertbeziehung)의 概念과 같다고 斷定하고 있다. 兩者의 見解는 다 같이 「無數의 現象, 이러한 現象으로부터의 概念圖式에 依한 選擇의 不可避性 價値 및 社會構造와 그의 圖式 및 問題의 定式化와의 關聯性」에서 出發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1949, pp. 261 seq.

值風土(value climate)⁽⁹⁾ 또는 「머튼」(Merton)이 表現한 認識의 方向設定(cognitive orientations)⁽¹⁰⁾의 問題도 「웨버」의 見解와 거의 一致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價值關係에 依하여 社會科學의 方法論을 樹立코자 하는 「웨버」의 立場은 過去의 經濟學의 方法論에 어떻게 對決하는가? 이 點 그는 古典學派經濟學 및 近代 限界效用學派의 經濟學의 方法論을 排擊하는 同時에 獨逸 歷史學派經濟學의 方法論도 아울러 反對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제부터 보기로 하자. 從來의 經濟學은 自然科學의 方法에 따라 普遍 妥當의 法則을 세우는 것을 唯一의 目標로 하였다. 經驗의 實在을 一般化하도록 表象하여 法則의 聯關을 찾아 分析하면 純粹히 客觀的이며 同時에 合理的인 認識으로 된다. 客觀的 合理的 認識은 오직 法則에 나타나는 것만을 科學的으로 本質的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個別的인 것은 偶然的이라고 보고 이를 除去한다. 近代自然科學은 自然現象을 無數의 原子에 還元하여 그것의 結合에 依한 法則을 抽象한다. 이와같이 社會科學은 社會現象을 간단한 終局的인 要素로 還元하여 이를 營利本能, 또는 經濟原則이라고 한다. 이에 立脚하여 經濟現象에 關한 어떤 法則을 세운다. 이러한 法則을 集大成하면 經濟現象을 을 바르게 認識할 수 있다. 이와같이 보고 이를 價格論 利子論 地代論等等으로 擴大시켜 經濟에 關한 嚴密한 諸法則을 自然科學의 法則과 같이 樹立할 수 있다고 從來의 經濟學者 特히 限界效用學派의 創設者인 「칼·뎅거」는 主張하고 있다.

「웨버」는 이러한 自然主義의 思考方法을 社會科學의 方法論으로서는 適當하지 않다고 보았다. 經濟學의 分析에 營利本能 또는 經濟原則을 心理學的으로 接近 解釋하는 것은 部分的으로 成果를 올릴지 모르나 그것으로써 歷史的으로 形成된 社會現象의 特性和 意義를 解明할 수 없다. 그리고 自然主義에 立脚하여 이 學派는 個人間的 心理的인 分析에 依하여 社會制度를 分析코자 하나 그것은 不可能하며 本末이 顛倒되어 있다. 왜냐하면 社會制度에 대하여 미리 一定한 知識을 갖고 이의 文化意義를 알아야 具體的인 人間의 心理를 깊게 理解할 수 있으나 社會制度를 心理學的 法則에서 說明하여서는 到底히 이를 究明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웨버」는 보았다.

이와같이 「웨버」는 自然科學의 方法을 그대로 文化 社會科學에 特히 經濟學에 導入코자 하는 것을 強力히 反對하였다. 이러한 自然科學의 方法論을 取하는 立場을 그는 自然主義的 一元論(naturalistischer Monismus)이라고 命名하고 있는데 이러한 傾向에 對하여 強

(9) W.J.H. Sprott, *Science and Social Action*, 1954, p. 52, p. 85

(10) R.K. Merton, *op. cit.*, p. 247

力한 反作用을 한것이 獨逸에서 일어 났다고 「웨버」는 보고 있다. 「피히테」以來的 獨逸理想主義의 哲學과 獨逸歷史法學派 獨逸歷史學派經濟學이 自然主義의 一元論에 對한 強力한 防波堤의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歷史學派經濟學에 있어서도 普遍的인 發展法則을 追求하면서 法則을 定立코자 하는 傾向을 갖고 있기 때문에 完全히 脫皮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웨버」는 보고있다. 「웨버」는 『「로셔」 및 「크니즈」研究』에서 歷史學派의 矛盾을 銳利하게 指摘하였다. 歷史學派가 古典學派의 絕對主義에 對立하여 相對主義 歷史主義를 主張하면서도 諸國民經濟間의 「併行關係」를 밝히기 爲하여 經濟發展段階說을 主張하였다. 그런데 諸國民經濟가 客觀的規則에 따라 一定한 發展段階를 밟는 理由는 「生命力, 類型, 神慮」(Lebenskraft oder Gattungstypus oder Gedanken Gottes)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로셔」는 보았다. 이는 自然科學의 概念 또는 宗教的인 神慮에 歸屬시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어서 無意味한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論文의 結論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로셔」의 歷史的方法은 純論理的으로 觀察하면 徹頭徹尾 矛盾에 넘치고 있다. 즉 歷史의 所與로셔의 모든 現象의 全實在을 把握코자 하는 그의 試圖은 이러한 現象을 自然法則안에 融合코자 하는 努力과 併行하고 있다……』⁽¹¹⁾. 「로셔」뿐만 아니라 모든 歷史學派의 代表者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즉 『歷史學派의 代表者들은 이따금 明確히 또는 暗暗裡에 다음과 같은 意見을 固守하고 있다. 이 意見에 依하면 모든 科學의 究極的인 目標目的으로 되는것은 科學의 研究資料를 하나의 概念體系안에 秩序지우며 그의 概念의 內容의 經驗的인 法則性을 觀察한다든지, 假說을 세운다든지 또 세운 假定을 檢證한다든지 하여 獲得되어 漸次 完全한 것으로 되므로 어느 날에는 完全한 따라서 演繹的인 一科學이 生길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現在의 歷史的 歸納的研究은 經濟學이 不完全하기 때문에 일어난 準備的인 研究에 不過하다고 생각된다……』⁽¹²⁾ 이러한 歷史學派의 思考의 基調에 素朴한 模寫說(Abbildtheorie)이 놓여 있다고 그는 指摘하고 있다. 歷史學派의 思想은 『概念의 目的은 客觀的인 現實在를 表象에 依하여 模寫하는 것이라는 前提』에 立脚해 있다. 즉 現實在안에 있는 여러가지의 材料를 表象에 依하여 模寫하여 概念을 얻는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概念은 도리어 經驗的으로 주어진 것을 思想的으로 支配하는 目的을 爲하여 만들어진 思想的인 手段』에 不過하다는 것은 「칸트」(I. Kant)에서 始作한 近代認識論의 根本思想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歷史學派經濟學者들은 素朴한 模寫說에 立脚하여 經驗的 事實을 모아 그곳에 共通된 徵表를 抽象코자 하나 그러한

(11)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S. 41

(12) Max Weber, *op. cit.*, S. 208

方法論에 立脚해서는 到底히 所期の 成果를 期待할 수 없다고 「웨이버」는 보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웨이버」에 依하면 古典學派 및 「벵거」의 方法은 自然科學的 法則을 濟經法則으로서 經濟學에 樹立코자 하나 이러한 經濟法則은 歷史的 個性的 意義를 밝히지 못하는 缺點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歷史學派는 理論의 歷史性을 強調하는 것이나 다만 材料의 蒐集集積에 依하여 漠然히 經濟의 現實在를 把握할 수 있는 經濟理論을 樹立할 수 있다고 素朴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理論을 올바르게 形成하지 못한 缺點이 있다. 이와같이 본 「웨이버」는 理論과 歷史와의 綜合, 歷史的 個性的 意義를 밝힐 수 있는 理論을 세우고자 하여 主張한 것이 그의 有名한 理想型(Idealtypus)이다.

歷史 및 社會現象은 끊임없이 流動하고 多樣多彩로운 形態를 取한다. 多樣多彩로운 生起의 흐름 안에서는 끊임없이 變化하는 것도 있고 恒常 反復하여 일어나는 것도 있다. 끊임없이 變化하는 것을 除外하고 反復하여 일어나는 社會現象中에서 重要な 要素를 歸納形成한다. 重要な 要素를 抽象的原理에 立脚하여 演繹하는 것이 아니라 現實의 社會現象에서 歸納코자 하기 때문에 實證主義의 性格을 가진다. 이렇게 形成한 要素를 思考的으로 上昇시켜 矛盾없는 思惟構成體를 만든다. 그가 『經驗的인 것의 思惟에 依한 加工』(denkende Bearbeitung des Empirischen)이라고 하며 또 『이 思惟構成體는 歷史的인 生活의 一定한 諸關係와 現象에 結付되어 思考에 依하여 形成된 聯關을 綜合하여 하나의 矛盾없는 世界로 構築된 것이다. 內容으로 보면 이 構成體는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의 性格을 갖고 있으며 이 「유토피아」는 現實의 特定한 諸要素를 思考的으로 上昇시킴으로써 獲得된 것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을 밝힌 것이다. 思考的으로 形成한 思惟構成體 즉 理想型은 現實在를 模寫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現實在와 다르다고 그가 強調한 點은 그의 認識論이 「칸트」的인 構成說에 立脚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理想型은 다만 一定한 要素를 內的 矛盾性없이 一面的으로 上昇시켜 形成된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의 純粹한 理念的인 限界概念이란 意味를 갖고 있으며 現實이 가져오는 經驗的인 內容中 特定한 意義있는 構成部分을 明確히 하기 爲하여 現實을 그것에 비춰서 測定하는 基準으로 되는 것이며 現實을 比較하여 보는 基礎로 되는 것이다.』 理想型은 現實을 把握하는 手段이기 때문에 그것이 效果的으로 現實을 把握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價値가 決定된다. 換言하면 理想型이 單純한 思考의 遊戲가 아니고 科學的으로 效果있는 概念을 構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理想型이 具體的인 文化·社會現象을 그의 聯關과 그의 因果의 關係와 그의 意義를 보다 有效하게 解明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와같이 보기 때문에 「웨이버」의 理想型은 有效性을 重要視하는 實用主義의 思想을 內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웨버」의 理想型은 從來의 理論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기로 하자. 理想型은 本質概念과 다르다고 그는 보고 있다. 例를 들면 어떤 理論的인 概念을 設定하고 이것에 依하여서만 歷史的인 現實의 固有한 內容 즉 歷史的 現實의 本質을 把握할 수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 本質概念의 思考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理想이 모든 歷史 社會現象의 背後에 숨어있는 實在的인 힘으로 作用하여 究極的으로 規定한다고 보는 見解는 理想型의 見解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웨버」에 依하면 近代科學은 因果關係를 밝히는 體系로서 經驗的 領域을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의 認識은 「事物自體」(Ding an sich)를 認識하지 못하며 現象의 背後에 숨어있는 實在을 把握하지 못하듯이 社會現象의 眞奧에 있는 實在을 把握할 수 없다. 歷史學派와 같이 民族精神에 依한 國家有機體說 또는 어떠한 法則에 따라 世界史의 必然的인 運動法則을 規定하는 唯物史觀은 經驗科學의 領域을 넘는 것이라고 그는 批判하고 있다.

「웨버」의 理想型과 「마르크스」의 思想과를 이곳에서 簡單히 比較하는 것은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見解의 差異가 있다. 「마르크스」는 「웨버」의 理想型에 가까운 思想을 資本論의 여러 곳에서 論及하고 있다. 『……理論上에서는 資本制的 生産方法의 諸法則은 純粹히 展開(sich rein entwickeln)되는 것을 前提한다. 現實上에 있어서는 恒常 다만 近似(Annäherung)가 있을 뿐이다.』 『問題를 純粹한 形態에 있어서 究明한다』(in Seiner Reinheit zu untersuchen) 이러한 「마르크스」의 表現은 많은 【곳에서 引用할 수 있으나 이러한 「마르크스」의 方法은 「웨버」의 方法과 一見 같은 것 같이 보인다. 最近 「오스카·랑게」(Oskar Lange)는 그의 著書 『政治經濟學』에서 「웨버」의 理想型을 「마르크스」의 그것과 거의 같다고 다음과 같이 評價하고 있다. 『웨버」는 本質的으로 보이는 【經濟過程의 特徵을 包含하는 抽象的 模型을 政治經濟學 및 社會學에 있어서 形成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 이러한 模型을 理想型이라고 定義하고 例로서 資本主義 封建制의 理想型, 都市經濟 手工業의 理想型을 列擧하고 있다. 이러한 型을』 「웨버」는 絕對的眞空안에서 일어나는 物理的反應의 模型과 比較하고 있다. 그는 理想型構成에 대단히 重要的 例로서 「마르크스」의 著作에도 言及하고 있다. 理想型의 方法論은 「마르크스」가 利用한 科學的抽象에 立脚한 우리가 考察한 經濟的理論模型에 어느 程度 類似性을 갖고 있다. 類似性을 갖고 있는 것은 特히 理想型의 抽象이 經濟過程의 現實의 歷史的經過에 立脚하고 있으며 古典學派 政治經濟學 및 主觀主義學派의 非歷史的抽象에 對立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러가지의 例에서 보면 앞서 列擧한, 우리의 假定の 境遇와같이 偶然的인 特徵을 除去하고 끊임없이 反復하는

特徵을 問題로하는것 같이 보인다. 一例로서 抽象的 經濟理論에 對應하는 理想型의 特徵을 볼수 있다. 「그것(抽象的經濟理論)은 交換經濟的 社會組織 自由競爭 및 嚴密히 合理的인 行爲를 가진 商品市場에 있어서 諸現象의 理想像을 보여 준다」 이것은 明白히 經濟的 理想模型의 概念에 對應한다』⁽¹³⁾ 이와같이 「오스카·랑게」는 「웨버」의 理想型을 「마르크스」의 方法과 類似한것을 強調하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웨버」를 批判하고 있다. 『그러나 同時에 「웨버」는 그가 信奉하는 新「칸트」學派의 觀念論的 認識論 및 方法論의 影響을 받아 理想型의 擬制的이며 오로지 發見的인 性格(fictitious and exclusively heuristic nature of ideal types)을 強調하고 理想型을 現實의 歷史過程의 反映이라고 보지 않는다. 때로는 그는 理想型의 構成에 있어서 特徵의 選擇을 그의 意義에 따라서 文化價値의 見地에서 하도록 勸告하고 있는것 같이 보인다』⁽¹⁴⁾

「웨버」의 理想型은 「마르크스」의 方法論과는 表面的으로는 類似하지만 「랑게」의 主張과 같이 兩者에 類似性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理論에 依하여 社會現象 그 自體를 本質的으로 反映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나 「웨버」는 社會現象 그 自體는 事物自體(Ding an sich)와 같이 把握할 수 없고 다만 認識의 關心에 따라 認識하는데 不過하다고 보는 것은 이미 본바와 같다. 「웨버」의 이러한 認識論的 立場에서 理想型을 擬制的 發見的手段으로 보는 見解가 當然히 抽出되는 것이다. 그런데 「랑게」는 이러한 「웨버」의 態度를 脫線한 것같이 非難하고 있으나 이는 根本的으로 웨버의 態度를 理解하지 못하는 見解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理論에 依하여 社會經濟的過程의 本質的 特徵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 過程을 通하여 歷史的 必然性을 갖고 進行하는 運動法則을 밝히고자 하나 「웨버」는 그것이 어떻게 現在와 같은 Gewordenseins 으로 되있는가를 밝히고 理解코자 한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이 運動法則을 自然史的過程으로서 밝혀 그것이 가지는 冷澈한 自然發生性의 面을 解明하는 것이나 同時에 階級鬭爭에 依하여 目的意識性을 賦與코자 하기 때문에 實踐의 性格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웨버」의 理想型은 「이와 같은 形態로 되고 다른 形態로 되지 않았다는것의 根據를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理想型을 實踐과 結付시키지 않는다. 「웨버」가 가장 強力히 理論과 政策과를 分離시키고자 하며 價値判斷을 排除코자 한것은 그의 理想型의 性格을 端的으로 表示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곳에 兩者間에 克服할수 없는 見解의 對立이 있다. 어떠한 分析方法에 있어서도 單純 個別 偶然的 契機를 排除하고 一般的인 理論模型을 形成하는것은 當然한 研究手續이라고

(13) Oskar Lange, *Political Economy*. English trans. by A.H. Walker, 1963, pp. 107~8

(14) Oskar Lange, *op. cit.*, p. 108

할수 있다. 이러한 研究手續의 類似性만을 갖고 兩者의 見解를 論評하는 「랑게」의 見解는 「헤겔」이 同一哲學에 對하여 評한 바와같이 모든 소를 黑色으로 보는 闇夜의 世界에서 본 見解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

「웨버」에 依하면 「마르크스」가 「資本主義의 自然律 그 自體가 鐵과 같은 堅固不動의 必然性을 갖고 作用하여 貫徹하는 傾向」을 밝힐수 있다는 主張에 反對하는 것이다. 「웨버」는 「마르크스」가 主張하는 法則 또는 歷史의 發展에 關한 構成이 理念型的으로 使用되고 利用되면 그것은 無妨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經驗的으로 妥當되는 것이라든지 進一步하여 眞正한(事實 形而上學的 意味이나) 活動力 傾向이라는 等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곧 危險한 것이라는 것은 「마르크스」主義的인 概念을 다룬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15)

「웨버」는 社會經濟現實 및 人間의 歷史를 어떠한 窮極的인 原因에 依하여 밝히려는 態度를 獨斷的方法이라고 보고 批判하였다. 宗教鬭爭에 依하여 人間歷史를 統一的 一義的으로 說明하려는 唯心論的命題나 또는 經濟鬭爭에 依하여 說明하려는 唯物論的命題나 모두 經驗科學的으로는 立證할 수 없는 問題라고 그는 보았다. 다만 이러한 獨斷的인 問題提起는 發見的手段으로서 有用할 뿐이지 이것이 事實上 어디까지 옳은가의 問題는 歷史的研究에 依하여 歷史的인 個個의 경우에 限해서만 決定된다고 그는 보았다. 이러한 그의 態度는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著書에서도 一貫되어 있다. 이 著書에서 그가 論及하고 있는것은 唯物史觀에 對立되는 唯心論方法에 依하여 歷史를 밝히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웨버」는 資本主義精神을 資本主義의 生産關係의 單純한 「이데올로기」로 본다든지 또는 生産關係에서 獨立되어 그自體 存立하는 宗教精神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資本主義精神이……다만 宗教改革의 一定한 影響에서의 產物로서 發生할 수 있었다든가 이와 달리 資本主義란 經濟制度가 宗教改革의 產物이라고 말하는」 바보같은 空論을 主張코자 하는것은 決코 아니다.』 그리고 이 研究의 結末에 더욱 뚜렷이 그의 意圖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研究의 意圖는 『偏狹한 唯物論的 文化觀 歷史觀에 代替하여 꼭같이 偏狹한 唯心論的 因果的 文化觀 歷史觀을 두고자 하지 않는다. 이 兩者는 다같이 可能하다』(16) 그가 이곳에서 밝히고자 한것은 市民的 社會層에 依하여 擔當된 合理的 生活態度에의 普遍的傾向이 資本主義的經濟와 「프로테스탄트」의 倫理 사이의 內面的親和關係를

(15) Max Weber, *op. cit.*, S. 205

(16) Max Weber, *Religionssoziologie*, Bd. 1, S. 205

및받침해 주는 限에있어서만 資本主義精神이 있다고 그는 밝히고 있다.⁽¹⁷⁾

「웨버」의 理念型은 이제 본 바와 같이 本質概念과 다른 同時에 自然科學的 概念構成人類概念과도 다르다. 類概念이란 것은 經驗的인 어떤 現象은 다른 現象과 다르며 그리고 다같은 種類의 現象안에서 있는 共通的인것 一般的인것 類型的인 特徵을 抽出하여 어떤 概念을 形成하는 것을 意味한다. 共通的인 것 一般的인 것을 抽出하는 過程에 있어서 偶然的인 것을 排除하고 類似的한 諸要素를 選擇蒐集하는 것은 理念型을 形成하는 過程과 같다. 그러나 類概念과 理念型은 다르다. 類概念의 構成目標은 되도록 많은 現象안에 共通으로 妥當하는 普遍的 法則을 樹立하는데 있다. 이와같이 되도록 많은 現象안에 共通的인 面을 抽象하기 때문에 그만큼 抽象的으로 되어 內容이 貧弱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自然科學的인 類概念의 構成이 進行되면 그만큼 社會現象의 特性, 文化的 意義를 밝힐수 없다. 그러나 理念型的 概念을 構成하는 目標은 文化社會現象의 特性을 銳利하게 認識하는데 있다. 境遇에 따라서 兩概念은 流動的이나 概括的으로 보아 社會現象안에 大量集團現象을 研究課題로 할 때는 類概念을 더 많이 使用하여야 하며 이와 反對로 社會現象안에 있는 獨特한 文化的 意義를 밝히는 것을 研究課題로 할 때는 그만큼 理念型的 概念을 使用하여야 한다고 「웨버」는 보고 있다. 그러면 本質概念 類概念을 排斥하고 어떻게 「웨버」는 다만 斷片的인 「事實」의 經驗的인 確定 따라서 끊임없는 事實의 摸索만을 하였는가? 事實 「웨버」는 摸索的이며 經驗的 事實의 集積에만 滿足하는 爲人은 아니었다. 社會經濟的 現象 및 歷史를 어떻게 客觀的으로 認識할수 있다고 보는가? 이 問題에 關한 것이 「웨버」의 因果歸屬(Kausal Zurechnung)의 問題로 提示된다.

II

歷史 및 社會現象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이를 어떠한 方法에 依하여 밝히는 가의 問題는 大端히 어려운 問題이다. 自然科學的 方法에 立脚하여 되도록 單一한 抽象的 一般的 法則을 抽出하여 歷史 및 社會現象을 밝힐 수도 있다. 그러나 「웨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方法論을 自然主義的 一元論이라고 보고 이를 極力排除하는 것이다. 그렇다. 社會科學에서 因果關係를 排除하면 그것은 材料의 集積에 不過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社會科學에서도 因果關係를 追求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個別的인 事件을 다루더라도 그것의 原因을 밝히면 無限히 많다. 無限히 많은 原因을 漠然히 羅列하여도 그것은 混沌以外的 아

(17) Max Weber, a.a.O., S. 83

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原因을 빠짐없이 追求하는 것도 實際로는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無意味하다. 그러면 어떻게 因果關係를 밝힐 수 있는가? 이러한 疑問에 對하여 「웨버」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無限히 多樣한 現象中에서 一定한 關心 價値理念에 따라 抽出된 部分만을 認識할 價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의 因果關係를 밝혀야 한다고 그는 보고 있다. 因果關係를 밝힌다는 것은 어떠한 法則을 抽出해내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因果歸屬을 하는 것을 意味한다. 換言하면 어떤 現象을 一般的 公式 또는 法則에 還元하여 이를 解明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現象中에서도 個性에 있어서 文化的 意義를 가진 部分만을 具體的인 原因에 因果的으로 歸屬시켜 이를 解明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에 對하여 「웨버」의 말을 引用해 보기로 한다. 『因果歸屬은 一聯의 抽象을 包含하는 思考過程의 形態에 있어서 行해진다. 그런데 最初의 決定的인 抽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즉, 우리가 일어난 事態의 事實上의 因果의 諸要素中에서 하나 또는 몇가지의 것을 一定한 方向으로 變換한 것으로 생각해 보고 그런 뒤에 이와같은 經過의 條件이 變換한 境遇 本質的인 點에서 같은 結果가 期待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다른 結果가 期待될 것인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¹⁾ 이것을 좀 풀어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歷史的인 事件이 일어났다고 假定하자. 그럴때 어떠한 個別的인 原因 A가 있어서 그러한 結果 B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因果關係로서 밝혀야 한다. 일어난 結果에 對하여 確定的으로 어떤 原因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럴 때 일어난 事態 B(結果)의 原因이 될 수 있는 諸要素를 A A' A'' A'''로 밝히고 諸要素中의 하나 또는 몇개를 抽出하여 그것과 일어난 事態의 結果間에 因果關係가 있는가를 밝히는 同時에 이와 달리 이러한 要素 A A' A'' A'''를 다른 一定한 方向으로 變更시켜 보면 一般的 經驗의 規則에 依하여 어떠한 結果經過가 일어나는 것인가를 想定判斷한다. 그는 이를 客觀的 可能性의 判斷(das objektive Möglichkeitsurteil)라고 일컫는다. 그리하여 想定한 經過 結果를 事實上일어난 事態와 比較하여 같은 結果가 일어난다고 期待될 것인가 안되는가를 檢討한다.

以上 본 것은 너무 抽象的이기 때문에 이를 具體的인 歷史的 事實에 關聯보기로 하자. 古代社會 希臘이 「페르샤」 戰爭에서 勝利하였는데 이때의 「마라톤」의 戰爭의 因果의 意義를 밝혀야 할 境遇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境遇 萬若 希臘人이 勝利하지 못하였다면 무엇이 일어났겠는가 즉 希臘의 發展이 여러가지 點에서 다르게 發展하였을 것을 想定해 본다. 이와같이 一旦 歷史를 客觀的으로 可能的인 經過로 想定한다. 그러면 「페르샤」人이 勝利하였다면 神政政治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一般的으로 戰勝國은 自國의 文化를 占領地에 移植

(1)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S. 273.

하는 것이며 神政政治는 世俗的인 文化에 對하여 不寬容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페르샤」 支配下에 나타날 假想的인 發展과 自由로운 精神이 發展한 事實上의 希臘의 發展과를 檢討해 볼때 이 「마라톤」의 戰爭의 意義를 因果歸屬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이 因果歸屬을 한다는 것은 社會現象을 必然的인 因果의 法則에 依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適合的 聯關」(adäquate Verursachung)의 概念에 依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을 意味한다. 앞의 例를 따르면 一定한 結果 B의 招來에 對하여 A가 適合的 聯關이 있다면 이 兩者間의 關聯을 適合的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偶然的(zufällig)이라고 한다. 「웨버」의 例를 따르면 1848年의 革命의 境遇 政治 經濟的 諸條件이 具備되어 革命에 切迫하고 있었다. 이에 伯林 宮城앞에서 울린 2發의 銃聲이 드디어 革命을 誘發하였다. 이 革命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政治 經濟的인 諸條件은 革命을 일으키는데 充分한 適合的 原因을 形成하고 있었다. 즉 當時의 政治 經濟的 諸條件과 革命의 招來와의 兩者間에는 適合的 聯關이 있었다. 그러나 2發의 銃聲은 革命의 勃發에 對하여 다만 偶然的 契機를 이룰 뿐이었으므로 이는 革命에 對하여 偶然的 聯關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웨버」는 보고 있다.⁽²⁾ 이와같이 因果歸屬시키는데는 다음과 같은 過程은 밝는다 ① 適合的인 現象의 切斷 ② 適合的 關聯이 있다고 생각되는 先行의 諸原因의 識別과 分離 ③ 非實在的인 進行의 構成 ④ 想定한 形態와 實在의 事實과를 比較한다.⁽³⁾

그가 이와같은 過程으로 因果歸屬을 시키고자 한 意圖는 무엇인가? 이는 歷史를 客觀的 可能性의 世界로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歷史를 必然的인 法則傾向에 따르는 것으로 보면 人間은 必然의 法則의 한 連鎖의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歷史를 必然的으로 決定되는 마당으로 보지 않고 이를 客觀的 可能性의 世界로 보고자 하기 때문에 客觀的 可能性의 判斷이란 概念을 導出하는 것이다. 歷史를 客觀的 可能性의 世界로 본다고 하여 人間이 恣意로 무엇이든지 歷史를 形成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恣意로 歷史를 形成한다면 歷史의 因果歸屬을 科學的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因果歸屬을 하기 爲하여 適合的 聯關과 偶然的 聯關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適合的 聯關과 偶然的 聯關을 밝힘으로서 科學的으로 因果歸屬시키는 同時에 人間活動의 自由로운

(2) 이 問題를 「웨버」는 “Kritische Studien auf dem Gebiet der kulturwissenschaftlichen Logik”에서 다루고 있다. 特히 “Objektive Möglichkeit und Adäquate Verursachung in der historischen Kausalbetrachtung”을 參照

그리고 Schelting, *Max Webers Wissenschaftslehre*, 1934, S. 215—290 S. 263 seq.

(3) Raymond Aron, *Introduction à la philosophie de l'histoire*, p. 164

領域을 確保하고 있다. 「레이몽·아롱」(Reymond Aron)이 다음과 같이 評價하고 있는 것은 適切하다고 볼수 있다. 『因果의 考慮에 依하여 우리들은 이제까지 意識하지 못한 現在에 對決하게 되고 우리의 運命을 決定한 諸現象을 理解하기 爲하여 이제까지 없었던 可能性에 生命을 불어 넣는다. 經過를 適合의으로 選擇함으로써 우리들은 環境에 對하여 人間의 決意를 對決시킬 수 있으며 이와같이 하여 人間이 歷史를 形成하는 諸行爲를 再構成할 수 있을 것이다.』⁽⁴⁾

「아롱」이 이곳에서는 이 以上 言及하고 있지 않지만 客觀的 可能性에 對한 「웨버」의 立場을 좀더 明確히 하여야 한다. 歷史研究에 있어서 人間行爲의 自由를 「웨버」는 不可測性을 創造하는 것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다음과 같이 論及하고 있다. 『이곳에 끊임없이 보이는 現象은 行動 하는 人間의 創造的인 意義가 自然現象의 機械的인 因果性과 代置되는 것에 依하여 人格의 行動의 不可測性이 自由의 結果이라고 하며 그 곳에 人間, 따라서 歷史의 特殊한 尊嚴性이 있는것이라고—— 直接的으로 또는 間接間으로——主張되어 있는 것이다.』⁽⁵⁾ 그는 自由人格이 갖는 非合理的인 殘滓, 不可測性을 批判하고 있다. 그에 依하면 人間의 態度는 그것이 自由로운 行動이 아니면 아닐수록 즉 人間이 自己自身을 把握하는 힘이 적고 自己自身の 行動에 對한 自由를 적게 保有하면 그만큼 그의 行動은 不可測的이라고 보는것이다. 이와같이 보고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行動者가 내리는 決斷이 自由로우면 自由로울수록 그만큼 즉 그의 決斷이 外的인 強制 또는 不可抗力的인 感情에 依하여 攪亂되는 것이 적은 恩慮에 立脚하여 내려지면 내려진 만큼—— 다른 條件이 같다고 하면—— 動機의 根據에 대한 合理的인 分析은 더욱 더 完全을 期하게 된다. … 아니 그것 뿐만 아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意味에서 行動이 自由이면 그만큼 즉 自然的인 事件이란 性格을 띠지 않으면 그만큼 人格의 概念—特定的인 窮極的인 價値와 生의 意義에 對하여 恒久的인 內面關係를 保有하는 것에 그의 本質을 찾는 人格概念——도 더욱더 有力해지고 그러한 究極的인 價値와 生의 意義는 行動안에서 具體化되어 그의 目的으로 되고 目的論的인 合理的인 行動으로 轉化한다. 이와 反對로 個人的인 生活의 模糊한 未分離的인 植物的인 根底 즉 人格이 動物과 全혀 같이 共有하고 있는 非合理性인 人格의 침범 不可侵性을 求하는 저—— 浪漫的인 自然主義的인 用語法에서의—— 人格思想은 漸次 消滅한다. 事實 「트라이취케」에 依하여 또 많은 사람에 依하여 頻繁히 使用되는 意味로서의 人格의 秘密

(4) Raymond Aron, *Sociologie allemande contemporaine*, p. 118

(5)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S. 46

의 背後에 있고 多分히 意志의 自由가 아직 自然的分野에 있는 것이라고 空想하는 것은 이 浪漫主義이다. 이 後者의 意味에서 意志의 自由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背理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直接的인 體驗에 비춰서 明白하다. 우리는 우리 行動의 非合理的인 要素에 依하여 強制되어 있다고 느끼고 또는 적어도 우리가 欲求하지도 않았던 條件의 制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인가?』⁽⁶⁾ 그가 自由라고 말하는 것은 行動의 非合理性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明確한 意識 밑에 어떤 目的을 設定하고 이에 가장 適合的인 手段을 講究하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그가 主張하는 自由는 合理性和 一致하는 것이며 目的的으로 行動하면 그만큼 그의 行動은 自由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歷史를 客觀的인 可能性의 世界로 보고 이를 因果歸屬시킨다는 것은 計量하고 思慮하여 行動하는 合理性이 自由라고 認定하는 前提 밑에서 主張하는 것임을 認識하여야 한다.

Ⅲ

위에서 본 歷史的 因果歸屬의 理論은 많은 問題를 提示하고 있다. 「파슨즈」(T. Parsons)가 말한바와같이 科學은 「實在에의 知的態度的 選擇의 體系」라고⁽⁷⁾ 볼 수 있으며 歷史家는 必然的으로 選擇的으로 歷史的 事實을 다루고 이의 因果歸屬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最近 「아롱」이 밝힌 바와 같이 歷史家는 理念型에 依하여 具體的인 歷史事實을 解明하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歷史的 事實에서 理念型을 導出해야 하는 面을 無視하여서는 안된다.⁽⁸⁾ 事實 歷史的世界는 選擇的이면서도 客觀的 事實을 無視해서 選擇의 일 수 없

(6) Max Weber, a.a.O., S. 132-3

(7) T. Parsons & E. Shils, *Towards a General Theory of Action*. 3rd ed., 1954

(8) 「아롱」은 다음과 같이 「웨버」의 誤謬를 指摘하고 있다.

“Weber aurait donc commis une double erreur. Il aurait mal distingué les propositions compréhensives, qui ont pour caractère et pour fin de traduire ce qui a été, et les jugements des causalité qui impliquent une généralité au moins virtuelle. D'autre part, il aurait renversé l'ordre des démarches scientifiques: l'historien ne vas pas du type au particulier, il extrait des faits (ou des documents) le type qui correspond à la conduite individuelle ou collective et qui, considéré comme une interprétation compréhensive, n'exige pas d'autre preuve. R. Aron, *Introduction à la philosophie de l'histoire*, p. 271

이와같이 指摘하고 그는 具體的으로 「마티에즈」(Mathiez)는 『佛蘭西革命史』(*Histo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의 原因에 대하여 「아시냐」(Assignats) 紙幣의 瓦解에 關한 論及에서 다만 한번밖에 言及하고 있지 않다고 指摘하고 있다. 「通貨의 濫發」(*émissions excessives*)에 따른 「信條의 喪失」(*perte de confiance*) 이에 따른 社會關係의 顛倒를 들었고 있다. 그러나 이러

다. 客觀的 歷史的事實에 適合인 因果歸屬을 하여야 한다. 이點 「웨버」는 지나치게 主觀的으로 因果歸屬의 理論을 생각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精神』의 著書도 歷史的인 資本主義發展의 解明보다도 그가 理想型的으로 形成한 「프로테스탄트」의 倫理, 資本主義精神에서 接近하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適合的聯關, 偶然的聯關의 基準도 主觀的 選擇的이다. 主觀的 選擇的으로 理想型을 形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歷史的事實을 解明하는데도 여러가지의 理想型이 可能하다고 보는 것이다. 제각기 다른 神을 崇拜하는 多神敎의 세계에 살고있는 現世人을 肯定하는 그의 생각은 理想型的의 形成에도 多樣性을 認定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理想型的의 多樣性을 認定할 뿐만 아니라 이를 形成하는 個人의 能力의 差異 및 具體的인 境遇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歷史家가 個人의 生活體驗에서 導出되고 方法的으로 訓練된 想像力을 作用하여 어느 程度 確實히 이 歸屬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느 程度까지 歷史家가 이 歸屬이 할 수 있는때 도움이 되는 特殊科學의 助力을 빌려야 하는가의 問題는 個個의 境遇에 따라서 決定된다』⁽⁹⁾

勿論 因果歸屬시키는데 있어서 個人의 力量이 問題되지만 이와같이 個人의 生活體驗에서 導出되는 想像力에 依存한다면 理想型은 참으로 虛弱한 地盤위에 樹立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는 理想型은 決코 絕對的인 이 아니고 相對的인 性格을 갖고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敘述하고 있다. 『推測할 수 없는 歷史的 事件의 흐름은 永遠으로 向하여 끊임없이 流轉하고 있다. 人間을 움직이는 文化問題는 끊임없이 새롭게 다른 色彩를 갖고 形成되어 간다. 이와 同時에 具體的 事件의 無限定한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意味와 意義를 갖게 하는 歷史的 個體로 되는 것의 範圍도 亦是 끊임없이 變動하여 마지 않는다. 史的 個體가 觀察되고 科學的으로 把握하는데 있어서 그의 根據로 되는 思想的 聯關도 變化한다. 그리하여 文化科學의 出發點은 中國人에 보이는 精神生活의 硬化 때문에 永遠히 無盡한 生命에 대한 새로운 問題를 提起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限 끝없는 未來안에 永久히 變化하여 간다. 文化諸科學의 하나의 體系란 것은 이것을 決定的이며 客觀的으로 妥當하는 體系化를 意味한다 하여도 取扱하는 問題와 範圍을 固定한다면 그것은 無意味한 것이다.』⁽¹⁰⁾ 또 다른 곳에서 歷史는 끊임없이 變化發展하기 때문에 理想型과 歷史

한 說明이 歷史的事實과 다르면 언제든지 歷史的事實에 忠實하여야 된다고 그는 指摘하고 있다. Aron, *op. cit.*, p. 272를 參照.

(9) Max Weber, a.a.O., S. 179

(10) Max Weber, a.a.O., S. 184

的 現實間에는 合致 또는 不一致되는 것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永遠의 靑春이 賦與되어 있는 科學이 있다. 모든 歷史的인 科學, 永遠히 進歩하여 마지 않은 文化의 흐름이 끊임없이 새로운 問題를 提起하는 모든 歷史的 科學이 그것이다. 이러한 科學에 있어서는 모든 理想型의 構成은 언젠가는 消滅되지만 그러나 同時에 恒常 새로운 理想型의 構成이 不可避하다는 것이 이 科學의 本質안에 놓여있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概念體系란 것은 우리들의 知識의 그때의 段階와 우리가 그때 自由로이 使用하는 概念的인 構成物에 立脚하여 事實의 混沌한 世界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關心의 範圍안에 이끌어 넣어 秩序를 가져오게 하는 試圖에 不過하다. 過去의 사람이 思考에 依한 加工에 依하여 즉 事實을 말하면 直接的으로 주어진 現實界를 思考에 依하여 變形함으로써 그리고 過去人の 認識의 狀態와 過去人の 關心의 方向과에 對應하는 概念안에 그것을 넣음으로써 展開되는 思想의 裝置는 우리가 認識을 새로이 하여 現實界에서 獲得할 수 있고 또 獲得코자 하는 認識과 끊임없이 對決한다. 이 對決의 싸움안에서 文化科學의 研究의 進歩는 이루어 진다. 文化科學의 研究는 그의 成果로 보면 우리가 現實을 把握하려고 努力할 때 使用하는 概念을 끊임없이 變更하는 過程이다. 그러기 때문에 社會生活에 關한 科學의 歷史란 것은 概念構成에 依하여 事實을 思想的으로 秩序지우는 試圖과 이와같이 하여 얻은 思想像이 科學的 水準에 對應하는 視野의 넓이와 變遷 때문에 解消되는 것 이와같이 하여 變化한 基礎에 立脚하여 概念이 새로이 構成되는 것 이러한 過程의 끊임없는 交替이며 將來도 그러할 것이다.』⁽¹¹⁾

「웨버」는 그가 唱導한 理想型도 亦是 歷史的 相對性을 免치 못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事實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絕對的으로 妥當하는 眞理는 없다.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웨버」가 본바와 같이 社會自體가 끊임없이 變化하고 概念構成도 끊임없이 變化하고 있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파스칼」(Pascal)이 「人間의 不幸」이란 項目에서 다룬 것과 같이 人間은 眞理에 對하여 絶望의 일까?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人間은 그들의 支配코자 하는 世界의 組織의 基礎를 무엇에 두는가? 제각기의 恣意에 두는가? 그러면 萬事는 無政府狀態이다. 正義에 두는가? 그는 正義가 무엇인가를 잘 모른다. 萬若 그가 正義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면 確實히 그는 누구라도 自己나라의 風習에 따라야 한다는 人間間에 行해져 있는 것 안에서 가장 一般的인 準則을 確立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된 正直의 光輝가 모든 國民을 풍미하였을 것이다. …… 그것이 世界의 모든 나라에 歷

(11) Max Weber, a.a.O., S. 207

史의 모든 時代에 確固히 確立되는 것을 우리들은 볼 것이다. 그런데 實際로는 氣候의 變化와 더불어 그의 性質을 바꾸지 않는 正·不正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緯도가 3度만 바뀌어지면 모든 法律도 一變化한다. 子午線이 眞理를 決定한다. 가장 基本的인 法律도 數年間 勝利를 거둔後에는 變化한다. 正義에는 그의 期限이 있다. 하나의 河川이 限定할수 있다는것은 참으로 무서운 正義일 것이다. 「피레네」의 이 쪽편의 眞理는 저 쪽편에는 誤謬이다. 『파스칼』이 銳利하게 指摘한 바와같이 社會科學에 있어서 眞理가 이와같이 不安定하다면 社會科學者에게는 共同的 廣場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假想的으로 世界史에 關하여 「볼테르」, 「갈·마르크스」, 「야스퍼스」, 「아놀드·토인비」를 한곳에 모아 共同討議를 한다고 하여도 共通의 結論에 到達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보는 世界史의 畫面이 다르기 때문에 제각기 自己主張만을 固執할 것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客觀性을 가진 眞理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完全히 虛無主義의 迷路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迷路를 脫出하는 세가지 脫出口가 있다.

第1의 方法은 끊임없이 變化하는 歷史 및 社會現象안에서도 一定한 自然法則과 같은 것을 抽出해 낼수 있다고 보는 方法이다. 「쾨른호프」(Werner Sombart)가 『세가지의 經濟學』(Die Drei Nationalökonomien)에서 ⁽¹²⁾ 自然主義的 方法이라고 일컫는 것이 이에 該當한다고 볼수 있다. 近世以後의 自然科學의 發達에 따라 自然科學에서 追求한 바와 같은 嚴密한 法則을 歷史社會現象에서도 밝힐 수 있다는 確信밑에 社會科學이 發達하였다. 自然法則과 같은 社會法則을 抽出코자 하는 學問的傾向은 大部分의 社會科學者에 나타나고 있으나 이의 代表的인 例로서 「파레토」(V. Pareto)를 보기로 한다.

「파레토」는 社會的 實在을 恒常體(résidus)와 派生體(dérivarations)의 두 部分으로 나눈다. 恒常體는 人間의 本能 感情과 같은 가장 基本的인 人間의 心理的 狀態를 意味하며 派生體는 前者를 說明하고 肯定 證明하는 理論的인 部分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恒常體가 社會生活의 基本核心이며 派生體는 다만 表面的인 現象에 不過하다고 그는 大膽하게 論斷한다. 社會가 異質的이고 變化한다고 하여도 基本的으로는 恒常體에 依하여 支配되므로 本質的으로는 變化가 없다. 物理學과 化學의 法則과 같이 人間行爲는 恒常體에 依하여 決定되므로 同一한 法則을 抽出할 수 있다. 어느곳에서든지 人間行爲는 本能衝動과 같은 恒常體의 結合 또는 複合體에 依하여 支配되므로 어디든지 같은 種類의 行爲가 反復될 뿐이며 같은 社會的 實在이 있을 뿐이라고 그는 斷定하는 것이다. 勿論 社會는

(12) Werner Sombart, *Die drei Nationalökonomien*, Neuntes Kapitel, S. 119 seq. 를 參照

變化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派生體의 變化에 不過하다. 派生體는 恒常體에서 派生한 것이기 때문에 重要하지 않다. 本能 衝動에 依하여 支配되는 人間行爲를 事後的으로 肯定 合理化 하는데 不過한 것이 派生體이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社會生活을 規定하는 것은 恒常體라고 그는 主張하였다.

萬若 「파레토」가 主張한 바와 같이 모든 社會現象이 恒常體에 依하여 規定된다면 歷史의 發展과 文化의 進展도 없을 것이다. 같은 身體를 갖고 恒常體에 依하여 支配된다면 舊韓國의 1860 年の 韓國人과 1960 年の 韓國人은 같은 法則에 따를 것이나 얼마나 큰 文化의 變化가 이 百年동안에 일어났는가 하는 嚴然한 事實을 抹殺하게 된다. 「파레토」의 思考方式로 생각하면 이러한 變化는 다만 派生體의 變化에 不過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러한 態度는 嚴然한 事實에 故意的으로 背反하는 態度에 不過하다고 볼 수 있다. 歷史의 相對性, 歷史的 個體를 無視하는 「파레토」의 自然主義的인 方法에 依해서는 文化의 進展變化를 決코 밝힐 수 없다. 그리고 「웨버」가 相對性을 追及코자 한 眞摯한 努力도 「파레토」의 思考方式에 依해서는 水泡로 돌아갈 것이다.

「파레토」의 社會學뿐만 아니라 經濟學도 亦是 같은 思考方法위에 立脚해 있다. 「알라스」(L. Walras)에서 시작하여 「파레토」에 이르는 「로잔느」學派에 있어서는 經濟組織을 均衡을 갖는 量的인 準力學的인 需要와 供給의 組織으로 보고 있다. 하나의 財貨(貨幣)를 計算單位 價値單位로 보고 이를 除去하면 市場에서는 $n-1$ 의 供給과 $n-1$ 의 需要가 一般均衡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經濟理論의 問題는 一般均衡을 形成케 하는 $n-1$ 의 價格을 解明하는데 있다. 이 價格形成을 「알라스」는 摸索(tâtonnement)에 依하여 說明할 수 있으므로 $n-1$ 의 均衡된 需要와 供給을 數學的 方程式에 依하여 解明할 수 있다. 이와같이 數學的 方程式에 依하여 嚴密한 自然科學과 같은 純粹經濟學을 樹立하고자 한 것이 이 學派의 基本的 特徵으로 되어 있다. 어느 市場이든지 市場이 있는 곳에는 「알라스」, 「파레토」의 方程式은 適用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抽象的인 市場에 適用한 理論은 具體的인 市場을 밝힐 수 없다. 現實과 接觸없는 事實의 內容이 없는 數理經濟學의 方程式은 그 自體 아무리 훌륭한 理論이라고 할지라도 現實을 올바르게 把握하지 못한다. 事實의 內容을 갖고 現實에 接近할 수 있는 方法이 摸索되어야 한다. 自然科學의 方法을 克服하면서 社會科學의 獨自性을 살리고자한 것이 「막스·웨버」의 方向이었다. 「웨버」의 研究者인 「알렉산더·폰·켈팅」은 『막스·웨버의 科學論』에서 「웨버」의 立場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最大限의 合理的인 明確性和 透明性을 가진 知識에 到達코자 念願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길을 따를 수 있다. 즉 그는 數學的 證據를 模型으로 하여 또

는 質的으로 따라서 相對的인 것에 不過한 모든 것을 實際의 事件에서 捨象하여 그것을 다만 量的인 關係로 還元코자 하는 學問을 模型으로 하여 그의 念願을 滿足시키고자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論理에 依하여 할 수도 있다. 「막스 웨버」에 있어서는 第1의 길은 問題外이 었다. 그는 第2의 길을 選擇하였다.』¹³ 그러면 第2의 길은 어떠한 것을 意味하는가? 어떠한 研究를 하려 할때 研究하는 對象의 材料는 社會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差異가 나타난다. 그러나 많은 差異를 羅列하여도 그것은 知識의 混沌밖에 안되기 때문에 無數한 材料를 整理하는 研究方法은 同一한 것이라야 한다. 研究方法으로서의 論理形式은 同一한 것이면서 具體的인 것을 媒介할 수 있어야 한다. 具體的인 現實性을 媒介하지 않고서는 社會科學은 樹立할 수 없는 同時에 論理形式에 依據하지 않는 社會科學도 樹立할 수 없다고 「웨버」는 보는 것이다. 「셸팅」은 「막스·웨버」의 立場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具體的인 科學的敘述의 妥當性의 基礎를 이루는 同時에 이 敘述을 修正하고 새로운 敘述를 定式化함에 있어서 妥當性의 基礎를 이루고 또는 이루어야 할 論理形式은 적어도 科學的知識이 意味를 가지려면 모든 境遇에 있어서 同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科學的인 敘述에는 論理形式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論理形式은 具體的인 科學的敘述의 基礎가 되어야 한다. 具體的인 것에 關聯되지 않은 純粹形式의 論理形式이 아니라 特殊性 具體性을 밝힐 수 있는 論理形式을 樹立코자 한 것이 「웨버」의 立場이었다. 「웨버」는 具體性을 媒介하는 論理形式을 樹立함으로써 相對性의 迷路를 脫出코자 하였다.

第3의 方法은 「마르크스」主義的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自身은 決코 絕對的眞理를 出수있다고 主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者안에서는 絕對的眞理에 到達할 수 있는 特權的인 階級이 있다고 한다. 이 特權的인 階級은 無產者階級이며 그들은 人類의 發展의 이끄는 使命을 갖고 있기 때문에 絕對的眞理에 到達할 수 있다고 본다. 「게오르그·루카취」(Georg Lukacs)는 『未來에 있어서 召命되고 또 기꺼이 이에 先導코자 하는 사람만이 現在의 具體的眞理를 認識할수 있다』고 본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은 歷史的社會的 根據 밑에서 이를 論證코자 한다. 『資本主義는 諸身分을 나누는 法律的인 境界壁과 더불어 時間과 空間에 있어서 다른 諸國家의 防壁을 무너뜨린다. 全人類가 形式的으로 平等한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人間은 참된 意味로 社會的인 人間으로 된다. 社會는 人間에 對하여 實在이다. 따라서 實在的인 社會의 知識은 資本主義의 土壤위에서만 즉 「부르주아」社會의 土壤위에서만 可能하다. 그러나 이 變化의 歷史的擔當者로서 나타

(13) Alexander Schelting, a.a.O., S. 6~7

난階級 즉 「부르주아지」는 아직 그의機能을 無意識的으로 遂行한다. 그들이 解放한 社會的 諸力 그들을 勝利로 이끈 諸力은 그들의 앞에 第2의 自然과 같이, 그러나 封建主義의 그것보다도 不透明한 第2의 自然과 같이 直面하고 있다. 無產者階級の 出現에 依하여 비로소 社會的 實在의 知識은 完全히 到達한다. 그리고 그것이 完成에 到達하는 것은 無產者階級の 見解안에 社會全體를 볼수 있는 位置가 發見된다는 事實이 있기 때문이다. 無產者階級에 있어서는 그들 스스로의 階級的 情況에 對하여 가장 完全한 明確性을 達成한다는 것은 決定的으로 必要하며 死活問題이기 때문에 그들의 階級的 情況은 社會秩序全體의 知識을 通하여 비로소 理解할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들의 行動은 그의 知識을 不可缺의 前提로 하기 때문에 唯物史觀안에 無產者階級の 解放의 條件에 關한 理論과 同時에 社會發展의 全過程의 實在에 關한 知識이 일어났다』 하고 말함으로써 亦是 거의 같은 見解를 밝히고 있다.⁽¹⁴⁾

이곳에서 唯物史觀에 對하여 全般的으로 論及할 수 없다. 社會理論을 階級에 따라 眞僞로 斷定한다면 「칼·만하임」(Karl Mannheim)이 眞摯하게 追及코자 한 不偏不黨의 知性人도 不必要하게 될것이다. 階級에 따라 社會理論의 眞僞가 決定된다는 假定을 萬若一旦 承認한다고 하면 同一한 階級에 所屬되는 者들은 거의 같은 結論에 到達할 것이다. 實際로는 같은 階級에 屬하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의 異說이 나타나고 있음은 이를 反證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設使 階級에 따라 理論形成이 다르다는 것을 認定한다고 할지라도 學問의 法官席앞에서는 無產者階級の 理論만이 本質的으로 眞理라고 主張할 何等의 根據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社會科學에 있어서 理論의 相對性을 어떻게 克服하는가를 보았다. 自然科學的 概念에 依하여 理論의 相對性을 克服하는 길은 이미 본바와같이 社會科學의 方法論으로서는 適合하지 않다. 또 「마르크스」的인 方法도 어떤 階級에서만 眞理를 賦與하는 獨斷을 犯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相對性의 問題를 唯物史觀을 絕對化함으로써 克服코자 하기 때문에 이 問題를 올바르게 解決하였다고 볼수 없다. 「막스·웨버」의 理念型에는 많은 問題가 있을뿐만 아니라 「펠딩」이 主張한 바와 같이 具體性을 媒介한 形式論理에 依하여 相對性을 完全히 克服하였다고 볼수 없다. 왜냐하면 「웨버」의 歷史觀은 基本的으로 合理化過程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依하면 歷史는 끊임없는 合理化過程이며 이

(14) Lukacs의 見解는 Werner Stark, *Sociology of Knowledge*, 1958, The Consequences of the Sociology of Knowledge, p. 152 seq.를 參照. 그리고 Oskar Lange, *op. cit.*, p. 334 seq.

따금 流星과 같이 「카리스마」의 人格이 大空을 지나가도 그것은 一時的인 現象에 不過하다고 그는 보는 것이다. 이와같이 歷史안에 合理的 要素만을 第一次의인 地位로 擡인다면 事實上 相對性의 問題를 올바르게 解決하였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웨버」의 理論을 否定的으로 批判할 뿐만 아니라 積極的으로 主張할 理論을 提供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課題는 새로이 檢討되어야 할 問題라고 할 수 있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所長
서울大學校商科大學 教授·學長〕

<Summary>

Some Problems in Max Weber's "Ideal Types"

*Mun-Whan Choe**

I

Max Weber's ideal type has been a common asset of all sciences as a useful methodological mean.

When we form a theory we give up individualities and clarify the substantialities. Alfred Marshall's "representative firm," Karl Marx's "pure capitalism," and Max Weber's "ideal type" have a common property that they all reject secondary attributes and focus attention of analysis to the substantial matters of things. Weber's ideal type concept has been applied widely, yet, there has been no sufficient inquiry into its nature. In this paper I will inquire into the ideal type and propose its problems.

Before 1902, Max Weber, as a young scholar, engaged in the study of history and showed deep concern about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But after that time he became more speculative and went into a new phase of his scholastic life. He speculated on methodology and epistemology. In his methodological papers published later, he developed the theory of ideal type and rejection of value judgements.

According to Weber, social science is the science of reality. We seek to understand the natures of reality of life: on the one hand we want to understand the realtions of individual social phenomena and their cultural meanings, on the other hand we want to clarify the bases of these relations. Therefore his scientific attitude is similar to that of Rickert, who maintains

* The author is dean and professor of history of economic thought,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research member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that cultural science can only be verified by historical and individual approach, and natural science by universal method.

In his contribution to scientific methodology,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1920), he argues that the cultural phenomena are relevant only when we evaluate them on a certain criterion and that human behaviors are different in nature from natural sciences because systematic understanding and valuations play a decisive role. When we are to study social phenomena we face a great number of raw materials and we select from those materials what are relevant from the view point of a certain cultural value (*Wertgesichtspunkt*), i.e., we can construct sociological knowledge only on a certain premise. Karl Mannheim's perspectivism, Spratt's value climate, and Merton's cognitive orientations are also similar to Weber's concept.

Weber's value method in social sciences is different in economics from the methodology of classical economists and of Austrian School, who pursue in economics universal laws as in natural sciences. In such methodology all individualities are rejected as accidental. By this method Carl Menger, the founder of Austrian School, developed his marginal utility theory.

Weber thought that such method of natural sciences was not relevant to social sciences. Furthermore, to interpret social system by psychological laws is to reverse the logical order.

The German Historical Method School is the product of reaction to such a naturalistic monism. But this school has contradictions in itself. This school pursu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reality by universal laws, i.e., by stages of development which are valid in any case. Weber thought that this method cannot achieve its desired end.

The methods of classical school and Austrian School are too theoretical; and that of historical school is too empirical; therefore the two must be combined. Weber sought to combine theory and history so as to develop the concept of ideal types (*Idealtypus*)

From the various materials of historical and social phenomena, we select important factors and constitute with them a body of thought by induction. Weber calls this body of thought which is consistent in itself, ideal type. In reality ideal type is nowhere and has a nature of utopia. This body, which is not a picture of reality, is different from reality. The value of ideal type, which is a mean to test the reality, is depend upon whether it can effectively elucidate the relations of real phenomena, causality and meanings of concrete social facts.

Ideal type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substance of a thing. The realm of science cannot be extended beyond the empirical world: we cannot perceive the thing in itself (*Ding-an-sich*) and cannot perceive the substance in the social phenomena.

In spite of Oscar Lange's maintenance, Weber's ideal type and Karl Marx's method have only superficial similarity. While Marx thinks that theory can reflect the real features of the social phenomena, Weber thinks that social phenomena themselves cannot be captured and only perceived according to the interest of the observer. Hence ideal type has the fictitious and exclusive heuristic nature. Besides Marx gives practical purpose to his theory, but ideal type has no such purpose. Weber also objects to the Marx's view that natural law of capitalism had inevitability. Weber calls it dogma to interpret human history by some ultimate cause, and idealism or materialism could not enter into the realm of the empirical science. His *Protestantische Ethik und die Geist des Kapitalismus* was not written to object the material conception of history nor to maintain a spiritual alternative.

As seen above Weber's ideal type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substance. At the same time it differs from the generic concept of natural sciences. Genus is similar to ideal type in constituting process, but the two are not identical in their target.

Weber's alternative is causal attribution (*Kausal Zurechnung*).

II

It is hard to determine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s; we could extract laws from social phenomena. But as seen above, Weber rejects this method. If we excluded causal relations from social sciences, the remainder is only a meaningless collection of materials. So we must seek the causalities. But when we intend to define the causes of a certain phenomenon we face a great number of causes. Vague enumeration of all the causes, even if it is possible, is only a chaos. In fact we cannot enumerate all the causes and doing so is only a nonsense if it is possible. How, then, can we clarify the causal relations of social phenomena? According to Weber, we can select from varied materials the part which is relevant to ascertain value conception and clear the causality of that part of the materials. To define a causal relations means causal attribution, not to reduce materials to rules, laws, or formulars

Causal attribution takes place by a series of thinking and attributes causes to a certain phenomenon so that the relation should be a meaningful one. In a historical event we must define a cause which raises a result B . But in reality to define a definite cause to a certain result is very difficult. In this case we suppose factors, A, A', A'', \dots , which can be causes of the event of B in question, and verify whether here is any causal relation between them. Further we may change the probable causes A, A', A'' , to a certain direction and judge the probable result by the general empirical laws. Weber calls this method, "objective judgement of possibility".

In this way we can clarify the adequateness of causes to a certain result in question. If there is a definite causal relation we call the relation adequate, and if not, accidental.

The causal attribution process as follows;

1. Severence of the adequate phenomenon,
2. Identification and separation of the preceding caus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adequate,

3. Construction of a fictitious process,

4. Comparison of the fictitious fact with real fact.

What is, then, the purpose of causal attribution? It is because Weber wanted to look the history as a world of objective possibility. In this way he draws out the concept of “objective judgement of possibility”, which we cannot draw from the inevitability view of history.

Man, however, cannot create history by his arbitrary behavior. So he separates causes into adequate and accidental causes. In this way he fulfill the causal attribution scientifically. And at the same time reserves the field of freedom of human behavior.

Raymond Aron is right when he says:

By consideration of causality, we can challenge the present which we have not recognized, and by confronting outer circumstances to the human volition we can give life to possibilities and rebuild the human behavior which forms the history.

In accordance with objective possibilities Weber refere to the freedom of human behavior. According to Weber freedom of behavior does not bring incomprehensibility. Contrary to this, the more has man freedom of behavior, the easier does he understand himself and analyse his motivation. In other words, Weber’s concept of freedom is not irrationality of action but devising a proper measure which is best fit to an established end. Accordingly his freedom coincides with rationality, View of history as a world of objective possibility and causal attribution are, therefore, maintained on the premise that rationality of thoughtful actions is freedom.

III

As seen above, the theory of causal attribution presents many problems. A historian must select materials from historical facts and fulfills the causal

attribution. But we cannot neglect the fact that he must first constitute a ideal type from concrete historical facts. History is selective only within the limit of objective facts. In this point Weber is too much subjective; even the criteria of adequate and accidental relationships are subjective. So there can be many different ideal types on one object, and the causes of this difference are not only concrete materials but also the difference of ability of the type constructor. Indeed we cannot deny the weakness of the bases of ideal types; Weber himself says that his ideal type also is subject to historical relativity. Indeed there exist no absolute truths in social sciences; here constitutions of concepts are changeable as the society itself changes. Then, is human being hopeless to reach the real truth? There is no absolute justice in society; truth in France is error in Spain.

But there is no objective truth in social sciences we may lost in a maze of nihilism. Fortunately, however, there are three ways to get out of the maze.

The first is the idea which conceives that it is possible to derive social laws from changing phenomena of history and society as it is possible to derive natural laws from natural phenomena.

Werner Sobart's naturalistic method is a good example. Rapid development of natural science since last century has stimulated social scientist to pursue to draw laws of social scientist to pursue to draw laws of social sciences according to the method of social science. Vilfredo Pareto is one of such social scientists.

Pareto separates social existence into two parts: *résidus* and *dérivations*. *Résidus* contain human instinct, emotion and so forth, and *dérivations* are the theoretical parts which explain, affirm and prove the former. To Pareto *résidus* are the kernel of social life and *dérivations* only superficial phenomena; Human behavior is determined by *résidus* and so we can, he concludes boldly, derive general laws which are valid in every place and at any time. If Pareto is right there can be no development in history and culture and as real society

is changing we cannot clarify progressing culture with such method of Pareto which neglect relativity and individuality of history.

In economics the Lausanne School of Walras and Pareto consider the economy as a pseudo-dynamic system of demand and supply, and a system of equations which express the relations among them has universal validity. But a theory without real contents cannot grasp the real phenomena.

The second is the method of Weber. Max Weber was the man who wanted to develop a theory which based on reality and at the same time did not lose the logic of reasoning.

The third is the method of a group of Marxists. They maintain that a privileged social class, the proletariat, which have the mission to lead the human history, can reach absolute truth. If truth and false are determined according social class we need not impartial inteligenzia which Karl Mannheim asserts. But from the view of science there is no ground to believe that the proletariat are always right.

By now we have seen how social sciences overcome the relativity of theory. To overcome the maze of relativity by the help of natural science is not relevant to social science. Marxists do not solve the problem adequately by giving a exclusive privilege to the class of proletariat and by giving absolute power to materialism.

Max Weber's ideal type has many unsolved problems and do not overcome the relativity perfectly. Because, basically, Weber considers the process of history as a process of rationalization. According to him history is a permanent process of rationalization and the appearances of charismatic characters is only a temporary phenomenon. By giving supremacy to rational factors in history we cannot solve the problem of relativity. We criticize Weber's theory negatively, but we must positively present a theory which can substitute that of Weber successfully. The task is to be considered later.